



DRIVING K-12 INNOVATION

2026 장애요인·가속요인·기술 촉진요인



CoSN은 본 연구를 지원해 주신 다음의 후원사들에 감사드립니다.



Education

K12 *Insight*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Driving K-12 Innovation 자문위원단으로 CoSN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CoSN은 상업적으로 중립적이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정 솔루션에 대한 언급은 설명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변경금지 4.0 저작권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CoSN 소개 - 학교 네트워킹 컨소시엄

CoSN은 K-12 에듀테크 리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협회로서 교육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 현재와 미래의 K-12 교육 기술리더와 교육현장이 매력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티, 지식 및 전문성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학습자가 각자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에 비전을 두고 있다. CoSN은 1,400만 명 이상의 학생을 대표하며, K-12 교육분야에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CoSN은 K-12 에듀테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법인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머리말

K-12 교육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육자와 교육 기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심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기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지식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Driving K-12 Innovation' 이니셔티브의 주요 주제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가속 요인은 2025년과 동일하지만 이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처음으로 장애 요인 목록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AI 생성 콘텐츠와 허위정보를 헤쳐나가고 사실과 허구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가 기술 촉진요인에 포함된 것은,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과 교육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도구'가 '기술 촉진 요인'으로 재등장하며, 사이버 위협과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급격히 변화되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교들이 2026년과 그 이후를 향해 자신 있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다양한 규모의 교육구와 교육 환경, 그리고 글로벌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러한 주요 주제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K-12 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진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지만, K-12 교육 분야의 체계적인 혁신은 교육자와 IT 리더들의 역량, 창의성, 그리고 인간성에 달려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이 그 미래를 과감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함께 이끌어나가기를 권합니다.

Keith Krueger
CEO(최고경영자)
CoSN(학교 네트워킹 컨소시엄)
워싱턴 D.C., 미국

목차

CoSN 소개 - 학교 네트워킹 컨소시엄	3
서문	3
방법론	5
연구 방법론	5
2026 DRIVING K-12 INNOVATION 주요 주제	6
배경	7
주제	10
교육자 및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12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	15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18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20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의 변화	22
학습자 주체성	24
생성형 인공지능	26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	29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도구	31
종합적인 관점	33
Driving K-12 Innovation 요약	35
감사의 말씀	37
2026년 DRIVING K-12 INNOVATION 자문 위원	38

서문

CoSN의 Driving K-12 Innovation 이니셔티브는 약 130명 이상의 교육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1년 동안 K-12 교육 혁신을 주도할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과제)', '가속 요인(메가 트렌드)', 그리고 '기술 촉진 요인(도구)'을 선정한다.

자문위원회는 CoSN의 온라인 포럼과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논의에 참여하며,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교육과 학습을 변화시키는 각 분야의 주요 주제를 선정했다. 올해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약 11주 동안 진행되었다.

(2026년 주요 주제에 대한 간편한 출력용 요약은 35-36페이지 참고)

방법론

1단계: 초기 설문조사

자문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초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 요인은 40개에서 14개로, 가속 요인은 28개에서 12개로, 기술 촉진 요인은 29개에서 13개로 각각 범위가 좁혀졌다.

2단계: 토론

초기 설문조사 이후 6주 동안 유익한 온라인 대화가 이어졌다. 자문위원회는 매주 제시된 질문에 답변하고, 이니셔티브의 핵심 관점인 '장애 요인', '가속 요인', '기술 촉진 요인'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춘 대화에 참여했다. 토론은 온라인 포럼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3단계: 최종 설문조사

최종 설문조사에서 자문위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 '가속 요인', '기술 촉진 요인'에 대해 투표했다¹. 검토된 수많은 중요한 주제 중 9가지가 2026년 K-12 교육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최종 설문조사는 각 주제의 특성, 즉 장애 요인의 극복 가능성, 가속 요인의 강도, 기술 촉진 요인의 시의 적절성을 파악하는데도 기여했다.

4단계: 종합 주간

자문위원회가 최종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주요 주제가 확정되자, 위원들은 온라인 포럼으로 돌아와 1.5주 동안 비동기식 토론을 진행하며 각자의 견해를 나누고, 2026년에 선정된 주제에서 발견한 '브리지(Bridges)'(또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1. 최종 설문조사 방법론 업데이트 : 지난 자문위원회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리더십팀은 올해 투표 방식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몇 년 간 자문위원들은 '장애요인(Hurdles)', '가속요인(Accelerators)', '기술촉진요인(TechEnablers)' 각 카테고리에서 정확히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도록 요청받았다. 새로운 투표방식에서는 각 자문위원에게 각 카테고리(장애 요인, 가속요인, 기술촉진요인) 별로 6점의 '점수'가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들은 주제의 중요도에 따라 투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6점의 '장애요인' 점수를 단일 장애요인에 모두 할당하거나, 6개의 장애요인에 점수를 분배하거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 사이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다.

2026 DRIVING K-12 INNOVATION

주요 주제

2026년 교육 시스템이 해결하거나 활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 가속 요인 및 기술 촉진 요인*



장애 요인

극복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이 필요한 혁신 및 학생 성공의 장애가 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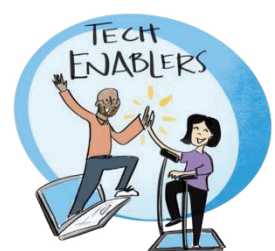
1. 교육자 및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2.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
3.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가속 요인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메가트렌드 또는 촉매제

1.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2.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
3. 학습자 주체성



기술 촉진요인

새로운 학습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가 장애 요인을 극복하며, 가속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1.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2.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
3.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도구

* 자문위원회 응답자 82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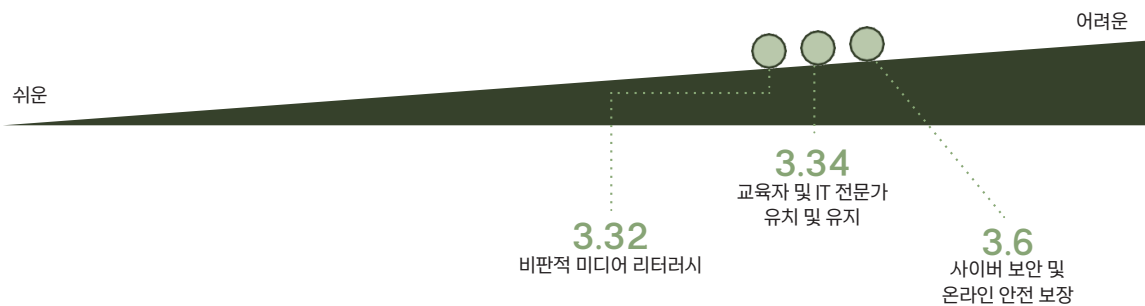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2026년 및 그 이후의 K-12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관점들은 2026년의 혁신을 형성하는 전 세계적인 공통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장애 요인 극복 가능성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또는 어려운) 일일까? 자문 위원회가 각 장벽의 극복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았다. (점수는 5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1점은 극복하기 가장 쉬운 것, 5점은 가장 어려운 것을 의미함*):

극복하기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순서:

-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3.32)
- 교육자 및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3.34)
-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 (3.6)



* 자문위원회 응답자 82명

상황별 과제: 지난 5년간의 주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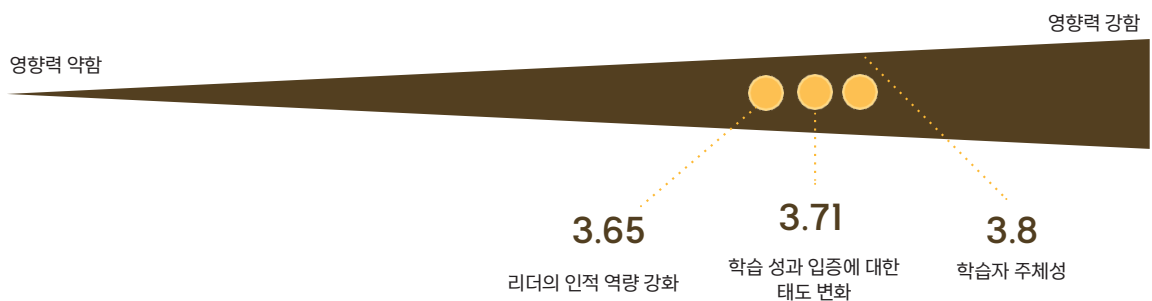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
교육자와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교육자와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교육자와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교육자와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교육자와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
	효과적인 디지털 생태계 설계			
디지털 형평성	디지털 형평성		디지털 형평성	
			교육 및 학습의 진화	
혁신의 확산과 교육 시스템의 관성		혁신의 확산과 교육 시스템의 관성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가속 요인의 강도

이러한 메가트렌드나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각각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자문위원회는 K-12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에 따라 상위 3대 가속 요인을 선정했다. (점수는 5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1점은 영향력이 가장 약한 수준, 5점은 가장 강한 수준임):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순서:

-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3.65)
-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 (3.71)
- 학습자 주체성 (3.8)



*82명의 자문위원회 응답자

상황별 가속 요인: 지난 5년 간의 주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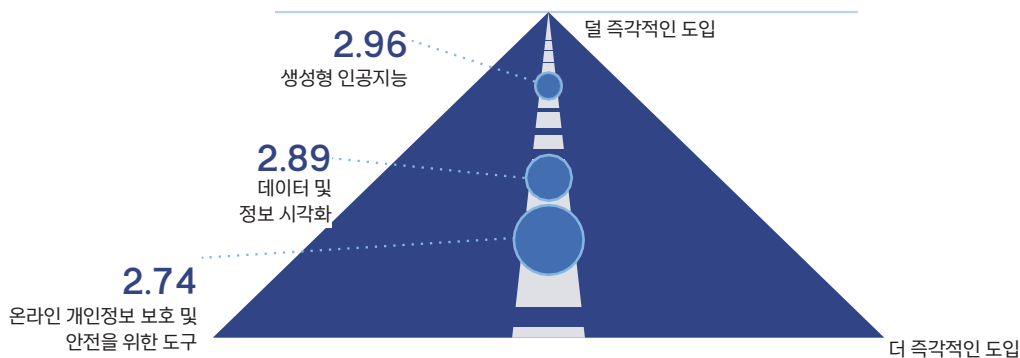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
	학습자 주체성	학습자 주체성	학습자 주체성	학습자 주체성
개인화				
사회정서적 학습	사회정서적 학습			

기술 촉진 요인의 즉각성

학교들은 이러한 기술 도구를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고 있을까? 자문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촉진 요인(Tech Enablers)’이 얼마나 신속하게 채택되고 있는지 순위를 매겼다.(점수는 5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1점은 가장 빠른 도입을, 5점은 도입까지 가장 먼 시점을 의미*):

학교 현장 도입이 가장 빠른 것부터 가장 느린 순서:

-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도구(2.74)
-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2.89)
- 생성형 인공지능(2.96)



*82명의 자문위원회 응답자

기술 촉진 요인: 지난 5년 간의 주요 주제

2022	2023	2024	2025	2026
분석 및 적응형 기술		분석 및 적응형 기술	분석 및 적응형 기술	
	인공지능(AI)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
디지털 협업 환경	풍부한 디지털 생태계	풍부한 디지털 생태계		
무제한 광대역 및 연결성	무선 광대역 및 연결성		제한 없는 광대역 및 연결성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도구

BRIDGES (주제)

'장애 요인', '가속 요인', '기술 촉진 요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점점 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K-12 혁신을 주도하는 '주제(Bridges)'는 교육혁신의 주요 주제를 아우르는 중요한 테마로서, 오늘날의 교육과제를 미래의 기회와 연결한다.

2026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타협의 여지가 없는 윤리적 프레임워크와 신뢰

윤리가 결여된 혁신은 신뢰를 훼손하며,
신뢰는 안전한 디지털 학습의 초석이다.

형평성과 접근성은 핵심

형평성이 결여된 혁신은 격차를 확대시키며,
형평성을 갖춘 혁신은 변화를 주도한다.

기술적 변화보다 문화적 변화

학교의 문화가 기술 도입의 성공을
좌우한다.



주목할 만한 교차점

종합 주간 동안 자문위원들은 2026년 주요 주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이를 서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사이버 보안 및 안전 보장,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도구들.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방법을 확실히 익히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적인 연수와 자원을 지원받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icole Bond, 링컨12 교육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와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의 교차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교육자들이 데이터에 주목하고, 수업 운영과 재교육, 학급 활동, 개별화 수업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특히 표준 기반 데이터를 다룰 때) 단순한 성적표 이상의 관점에서 학생의 학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교과서나 연습지 대신 표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우리 학군에서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사들이 시험이나 퀴즈의 정오 여부가 아니라 교육 기준 자체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어떤 학습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공통 평가에는 ‘페어 어세스먼트(Pear Assessmen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atie Harmon, 웨스트힐 센트럴 스쿨스, 뉴욕, 미국).

“세 가지 가속 요인, 즉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 ‘학습자 주체성’은 모두 학습자와 교육자의 힘을 인정해야 한다는 더 큰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청소년과 교육자들이 타고난 능력과 호기심이 많은 창의적인 리더로서 인식된다면, 그들의 주체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육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에 대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사고방식은 현재의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고방식과 신념은 기존의 구조를 정당화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고방식과 신념이 변한다면,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타당하거나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Katie King, KnowledgeWorks, 미국).

“간단히 말해, 혁신은 ‘사람’이라는 동일한 토대와 목적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혁신이 우리 자신의 삶과/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다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장애 요인(Hurdle), 가속 요인(Accelerator), 기술 촉진 요인(Tech Enabler)은 결국 사람을 돕고 돌보는 데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유지하고 유지하며,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확산하고, 학습 성과에 대한 태도 변화, 학습자의 주체성 강화, 그리고 AI,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도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업무가 전적으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Craig Chatham, 링컨서-프레리 뷰 D103, 일리노이주, 미국).

교육자 및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정의

학교 교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교육계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많은 교육자들이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소진을 겪고 있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접고 교직을 떠나고 있다. 게다가 교육자들은 사회와 제도적 체계 양쪽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학업적·사회적·정서적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자신의 능력과 헌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된다.

IT 전문가와 기술 중심 교육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학교들은 더 높은 급여, 재택근무 옵션, 유연한 근무 시간, 더 많은 휴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과 최신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컴퓨터 과학과 같이 급변하는 분야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경험 많은 직원들이 은퇴함에 따라, 교육 및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숙련된 전문가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일은 오늘날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교육계는 교사와 IT 전문가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교육자와 IT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급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전문적 존중,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환경이 요구됩니다. 학교가 교사들에게 기술을 창의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IT 팀이 교육 설계와 전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두 그룹 모두 자신의 업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감은 인재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David Deeds, 풋프린트 인터내셔널 스쿨, 캄보디아 프놈펜).

Deeds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회는 물론 학교 시스템조차 더 이상 교육자들을 유능한 전문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갤럽\(Gallup\) 여론조사](#)에서 미국 응답자의 50%가 “고등학교 교사의 정직성과 윤리 기준”을 높거나 매우 높다고 평가했으나, 이 수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존중과 소속감의 상실은 업무량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

IT 전문가와 기술 중심 교육자들에게는 이러한 압박이 더욱 심하다. 교육구는 복잡한 기존 시스템과 최신 인프라를 통합하고, 사이버보안을 유지하며, AI 기반 학습 도구를 지원하고, 컴퓨터 과학과 같은 신흥 분야의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 인력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더 높은 급여, 원격 근무 옵션, 유연한 근무 시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휴가 시간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베테랑 직원들이 은퇴함에 따라 교육구는 기술 전문성을 대체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 및 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숙련된 인재를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 교육구에서 리더들은 의도적이고 사람 중심의 전략이 직원 유지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자문위원인 Kelly May-Vollmar(미국캘리포니아주 데저트샌즈 통합 교육구)는 자신의 교육구가 96%라는 놀라운 직원 유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문화 구축에 뿌리를 둔 결과라고 밝혔다. “우리는 급여가 경쟁력 있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지만, 동시에 조직 분위기와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May-Vollmar는 말했다.

매년 May-Vollmar의 학군은 학업 목표와 함께 조직 분위기와 문화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여, 교직원들이 “친근하고, 참여도가 높으며, 즐겁고, 존중받으며, 윤리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직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노력은 전문성 개발과 내부 성장에 대한 강력한 강조와 결합되어 있다. May-Vollmar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승진의 대부분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이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다.

조직 문화와 교원 유지의 관계는 자문위원인 Beatriz Arnillas(미국 매사추세츠주 IEdTech 재단)의 경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휴스턴 교육구(Houston ISD)에 근무하던 당시, 무어스빌 학군(Mooresville Graded School District) 팀과 협력하면서 얻은 교훈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첫 번째 교훈은 이랬습니다. 매일 모든 교직원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리더십 전환기를 겪고 있는 학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James “Seamus” Cummins(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젠킨타운학군)는 2017년 이후 자신의 학군에서 네 명의 초등학교 교장이 교체되었으며, 각 교장이 퇴임할 때마다 “학교 내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학군은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의도적으로 문화적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Cummins는 “우리 학군 행정팀에 새로운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신입 구성원이 합류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교 장의 주된 목표는 학교 내 문화를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분위기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교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직원들도 계속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전체 교육 공동체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Ben Bayle(미국 일리노이주 디칼브 CUSD428)은 인재 유지가 안정성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적 역량에 투자하고, 장애물을 줄이며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자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은 AI와 같은 신기술이 학습자의 주체성, 개인 맞춤화, 교직원의 복지를 중심으로 도입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없다면 학교는 혁신적인 계획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재 유지는 단순한 인사 관리 기능이 아니라 문화적·전략적 우선 순위이다. 교육구가 신뢰, 감사, 성장경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인재에 투자할 때, 혁신을 이루고 신기술을 통합하며 학생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사명과 부합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채용 역량을 강화하라

“대학, 전문 협회, 교육 기술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사명과 뜻을 같이하는 우수한 인재 풀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문성 개발, 그리고 인정이 조화를 이룰 때, 학교는 교육 팀과 기술 팀 모두에 걸쳐 안정성, 창의성, 그리고 혁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Lisa Gustinelli,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빈센트 페레르 학교).

직원 역량 개발에 투자하라

“IT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는 동시에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인지하고, 비록 민간 기업에 추천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들의 다음 직책을 위한 기대치와 코칭을 매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Pam Batchelor, 윌슨 카운티 교육청,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자의 시간과 인간성을 보호하라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교사가 교육에 인간적인 면모를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직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을 활용해 교사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 교사를 유지하는 전략은 ‘기계적’ 업무를 처리하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들이 교직에 입문하게 된 계기인 인간적인 업무(일대일 통화, 맞춤형 피드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행정 업무에 파묻히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인간적 유대를 보호하고 가능하게 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Zainab Adeel, 바얀아카데미, 미국 메릴랜드주).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

정의

교육 분야의 교수, 학습 및 업무 수행은 점점 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가정이나 학교를 막론하고 모든 기술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사용자를 24시간 내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술적 요구가 확대되고,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 및 교육하며, 온라인 세계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

디지털 도구는 이제 교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록 플랫폼, 통학 관리 소프트웨어, 교육구 재무 시스템 등 학교 운영의 모든 측면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에서도 교사, 학생, 행정 담당자들은 필수적인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술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구들이 데이터 유출, 피싱 시도, 신원 도용, 시스템 취약점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

학교는 모든 기기,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위협 환경 속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 기술 인프라의 확장과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배경적인 IT 기능에서 핵심적인 운영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위협을 관리하려면 인력,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 시스템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많은 학군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인력 확보와 역량 문제이다. 자문위원이자 미국 위스콘신주 시더 그로브-벨기에 학군의 교육감인 Elizabeth Freeman은, 소규모 IT 팀이 온라인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보안의 책임이 오로지 이 작은 IT 팀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우리 모두는 네트워크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Freeman은 말했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저는 교직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점이 보이면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다른 학군들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균형 잡기 작업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문위원인 Morgen Wilson Merritt(미국 텍사스주 이안스 독립 학군)는 보안 유지와 원활한 수업 운영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강조했다. Wilson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디지털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방법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학구는 구성원의 공감과 문화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을 모두가 역할을 맡는 단순한 IT 과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화’로 재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라고 윌슨은 말했다. 여기에는 “짧은 시나리오와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교직원들이 보안을 일상 업무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사이버 보안 인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학군은 사고 사례에 대한 논의를 학습의 기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두려움이나 수치심, 또는 소진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자문위원인 Laura Pollak(미국 뉴욕주 나소 RIC, 나소 BOCES)은 이러한 사이버 보안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뉴욕주에서는 K-12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교육법 2-d](#))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과 제공업체가 견고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행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Pollak은 “학생 데이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적으로 교육법 2-d 조항 준수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뉴욕주 교육부(NYSED) 개인정보 보호실(Privacy Office)이 이를 집행한다. 또한 교육구는 정책을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학생의 PII(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이 매년 정보 보안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결정을 내리는 교육구의 명확성을 줄여준다.

자금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참고로, CoSN의 ‘[2025년 에듀테크 학군 리더십 현황\(State of EdTech District Leadership\)](#)’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군은 네트워크와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전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학군이 일반적으로 일반 기금을 사용하여 사이버 보안 활동에 비용을 지출하고(61%) 대다수(78%)가 모니터링, 탐지 및 대응 전략에 사이버 보안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보안과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책임, 직원 역량, 선제적인 정책,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보안이 교육, 학습,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보안과 학습 접근성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들 사이에 단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사이버 보안 조치
2.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노력 및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3. 앱 선정 및 심사
4. 이해와 실행을 위한 전문성 개발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 모든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담당자, 교육과정 담당자, 기술 담당자, 교사 대표, 학교 행정 담당자가 함께 협력하며 그 배경과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역 학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교육구 위원회에 연계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Donna Williamson, CoSN K-12 CTO 아카데미, 미국 앨라배마주).

강력한 안전 장치와 창의적인 디지털 탐구의 균형을 유지하라

“K-12 교육에서 사이버 보안과 온라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 교직원, 기관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개방적인 접근과 창의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디지털 도구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도입함에 따라, 안전한 네트워크, 다중 인증, 책임감 있는 데이터 활용과 같은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탐색하고, 협력하며,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와 창의적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때, 학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행동을 장려하며,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활력 있는 학습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Todd Pickthorn, CETL, 마셜 공립학교, 미네소타주, 미국).

IT와 교육 간 격차를 해소하라

사이버 보안과 학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우리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학생 및 교직원의 요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너무나 자주, 저울추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교육구가 극복해야 할 일련의 장애물을 만들어낸다. “저는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분들과 교실의 교육자, 양측 모두 상대방의 사명과 목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Ryan Cox, 미국 미네소타주 오세오 지역 교육구 279)

* CoSN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환경(Trusted Learning Environment)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 조직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현재의 기술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떤 정보가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믿을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제작 플랫폼 및 기타 AI 기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신속하게 제작되고 공유될 수 있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플랫폼에 걸쳐 실제 콘텐츠, 조작된 콘텐츠, 그리고 허위 콘텐츠를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진위성과 신뢰성을 식별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기술을 갖춰준다. 이는 메타인지(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 사실 확인, 기술 및 AI 리터러시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을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미디어의 창작자로 인식한다. 모든 교과 영역과 학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으로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제 고등 교육 및 성인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시민적·사회적·디지털 생활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데 기여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지고 설득력이 강해지며 검증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문위원인 Sarah Margeson(미국 인디애나주 티피카누 교육구)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민성 논의에서 항상 다뤄져 온 주제”였지만, 그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Margeson은 “AI로 인해 학생들이 웹상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텍스트 평가(위키피디아 등)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가짜 동영상, 이미지, 뉴스 기사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 자문위원 Beatriz Arnillas(미국 매사추세츠주 IEdTech 재단)는 “1900년대 초반에는 인류의 지식이 10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났지만, 오늘날에는 12시간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Arnillas는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이 더 이상 정적이고 위계적인 사실의 집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대신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음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 메타인지 능력: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
- 사실 확인 능력: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 기술 및 AI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를 대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
- 책임감 있는 AI 사용: 위험성과 윤리적 함의를 이해하는 것.

Arnillas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자신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오늘날의 학생들은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AI 생성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이제 논의의 범위가 미디어, 정보, 디지털, AI 리터러시 전반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Lindy Hockenbary(LindyHoc, 미국 몬태나주)도 이에 동의하며, 학교들이 이 논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AI 시대에 우리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Hockenbary는 말했다. 그녀는 디지털 시민성을 시민의식 그 자체와 분리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광고판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 광고판의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민성이 아니라, 그저 시민의식일 뿐입니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는 학생과 교육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기초 역량으로, 식별력, 윤리, 시민적 사고, 감성 지능, 그리고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아우르는 것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오늘날 정보 생태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의 차이점 파악하기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된 핵심 지식과 기술을 포괄합니다. 디지털 시민의식은 기술을 사용할 때 고려하고 적용하는 행동과 태도를 포함합니다.” (Kimberly Martin, 미국 버지니아주 전국학부모회)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선택 과목이 아닌 교실의 필수 요소로 삼아라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문가와 학생의 성장에 있어 장애물이자 기회입니다. 미디어의 정확성, 편향성, 의도를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학습자는 취업 시장과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Pam Batchelo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윌슨 카운티 교육구)

학생들이 위협과 진실을 동시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장애 요인(Hurdles)’ 세션 중 토론 회의에서, 자문위원인 Sandra Paul(미국 뉴저지주 유니언타운십 공립학교, 은퇴)의 그룹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을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이러한 주제들이 종종 별도로 다루어지지만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공동체 전반에 걸쳐 디지털 시민성과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사기나 피싱과 같은 디지털 위협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요약

학교가 코칭, 교육, 리더십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에게 투자할 때, 체계적인 혁신에 필요한 기술, 주체성,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함양하게 된다. 학교의 전문 공동체를 강화하고 교육자 및 K-12 전문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와 같은 신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고 보편적 디자인과 접근성을 수용하며, 두려움 없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는 다양하고 열정적인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곳을 만들어 낸다.

교육구가 교사와 교직원을 위한 전문성 개발, 코칭, 리더십 육성 경로에 의도적으로 집중할 때, 이는 개별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윤리적 실천, 그리고 과감한 실험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노력은 급속한 기술 변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환경, 그리고 교육과 운영 양면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 시대에 특히 중요하다.

교육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주제는 리더십 개발과 AI 리더러십 간의 필수적인 연관성이다. 자문위원인 Justin Thompson(미국 워싱턴 D.C. 소재 전미교육협회)은 “학생과 교육자가 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육자들이 AI에 대한 완전한 이해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를 기초 교육의 일부로 습득하기 전에, 이는 모든 교육자의 전문성 개발과 준비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NEA의 [‘교육 분야 인공지능 태스크포스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육자들은 AI 소양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특정 AI가 무엇이며, 어떻게, 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학습 기회는 모든 직급과 경력 단계의 교육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리더십 역량은 교직원이 신기술을 윤리적이고 교육학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자문위원들은 리더십의 깊이 있는 인간적 측면을 강조했다. 자문위원 Kelly Sain(미국 콜로라도 주 톰슨 학군)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봉사하고 교육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리더십이 현직 교직원을 지원하는 것을 훨씬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 역량은 성찰하는 능력, 상하를 가리지 않고 코칭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능력입니다.”라고 Sain은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불확실성, 학생 수 감소, 소셜 미디어, AI, 1차 학습과 같은 중대한 1차 기술 변화 등 비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민첩성과 회복탄력성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리더십 과제는 타인을 고정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장, 적응력, 그리고 인간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AI가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한 인간 중심 리더십을 구축하라

자문 위원인 Mary Lang(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더십 형평성 및 연구센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래의 교육 리더들은 AI에 도전하고, 자신의 확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관점의 연속체를 자유롭게 오가며, 집중이 필요할 때는 세부 사항에, 맥락을 파악해야 할 때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스며든 미래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리더십 자질인 ‘탐색(navigation)’과 ‘의미 부여(sensemaking)’의 핵심입니다. 기초적인 탐색 및 의미 부여 기술에는 데이터 활용 능력, 기초 신경과학, 정책 수립, 사이버-사회적 리터러시, 윤리 판단 정의, 그리고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이 포함됩니다.”

‘인간적 이유’로 이끌어라

“교육자와 학교 시스템 리더들이 2026년 K-12 혁신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 도입에서 인간의 역량 재구상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과 급격한 변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리더들은 모든 디지털 도구의 이면에 있는 ‘인간적 이유’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핵심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자동화할 수 없는 기술인 교사와 학생의 회복탄력성, 비판적 사고력, 사회 정서적 기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Beverly Knox-Pipes, BKP 솔루션, 미시간주, 미국).

리더십 개발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문위원인 Gaby Richard-Harrington(미국 매사추세츠주 그레이터 커먼웰스 버추얼 스쿨)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했다. “이것은 우리가 맡은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곳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꿔야 합니다.”

자문위원 Tom Ryan(미국 뉴멕시코주 K12 전략 기술 자문 그룹)은 리더십 준비도를 시스템 설계와 연결 지어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2026년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 변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Ryan은 혁신에 대해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 변혁을 통해 사람과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들이 성찰적이며, 철저히 준비되어 있고,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학교는 교육자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협력하며 학생들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문화를 조성한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기반이야말로 의미 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의 변화

정의

학생의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하며, 가치를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암기 위주의 학습, 문화적 편향, 제한적인 실생활 적용 가능성 등은 전통적인 시험 방식이 효과적인 평가 수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해당 과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학습자 주체성, 맞춤형 교육, 평생 학습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동시에, 전통적인 교육 기관의 역할, 경험의 가치, 그리고 변화하는 진로 경로와 교육을 조화시키는 데 따르는 과제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K-12 교육 체계를 거치는 동안 및 그 이후의 학생들의 진로는 혁신과 오랜 전통의 교육적 규범이 미치는 영향 모두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K-12 교육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학습 성과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암기, 시간 제한, 그리고 제한된 정답 범위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시험은 학생의 심층적인 이해력, 창의성, 또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자문위원인 David Deeds(캄보디아 프놈펜 풋프린츠 인터내셔널 스쿨)는 “교육은 표준화된 시험과 암기에만 국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이해도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습이 학생들이 특정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 낼 수 있는지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에 몰입하고, 창조하며, 반복하고, 적용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Deeds는 또한 객관식 시험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학습 과정의 한 예로서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자처럼” 사고한다. 즉,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패턴을 찾아내며, 불필요한 요소를 걸러내고, 단계별 해결 방법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다른 학군들의 경우, 학습의 실제적 증명으로의 전환은 '모두를 위한 학습 설계(UDL)'와 인공지능의 현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 자문위원은 이러한 창조 중심의 사고방식이 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공유했다. 이곳에서는 4세 어린 학생들조차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개선한다. 2학년 과학 단원의 일부이든 고등학교 공학 과제이든, 이러한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설계, 문제 해결,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혁신을 통해 학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 또한 학습을 보여주는 방식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문 위원인 Carla Puppo Perfumo(Colegio Franklin D. Roosevelt, 페루 리마에 위치한 아메리칸 스쿨(The American School of Lima)은 기존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이 지닌 깊이, 창의성, 복잡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이 진정성과 목적 지향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학교가 "포트폴리오, 공연, 프로토타입, 팟캐스트, 프로젝트 등 다중모드 방식의 학생 주도형 학습 성과물"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학생들이 단 순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준다. 멀티미디어 플랫폼에서 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도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열정에 맞춰 개인화 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평가 관행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돕기 위해 에듀테크(EdTech) 리더들은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주, 또는 전국 차원에서) 교육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생계가 주 단위 평가 점수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Puppo Perfumo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성적 평가의 효율성을 넘어 피드백, 반복 개선, 그리고 다양한 진로를 축하하는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학생들과 함께 평가를 설계하고, 평가 과제가 실제 세계의 과제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Puppo Perfumo는 학습이 의미 있는 창작과 목적 있는 적용을 통해 드러날 때, 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역량 강화의 과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하는 태도는 고등 교육, 직업 교육, 평생 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더 광범위한 재구상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규범이 주체성, 개인화,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교차함에 따라, K-12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학습자 주체성과 개인화를 결합하여 속달도를 높여라

'Accelerators' 토론회에서 자문위원인 Amy Zock(미국 조지아주 디케이터 카운티 교육청)는 학습자 주체성과 개인 맞춤화의 교차점, 특히 '학습 성취도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를 탐구한 자신의 그룹을 대표하여 발표했다. 해당 그룹은 학습 성취가 학생들이 아는 것을 보여 주는 방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탐구해 나가느냐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학습자 주체성과 개인화를 결합한다면 그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라고 Zock는 말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라

"리더들은 평가를 단순한 암기 같은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과업에서 벗어나, 복잡한 문제 해결, 종합적 사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Beverly Knox-Pipes, BKP 솔루션스, 미국 미시간주).

진정한 주체성은 체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학습자에게 진정한 주체성이 보장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역량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성과 관점이 마련되며, 교육 시스템 내 구성원들의 성장이 최우선에 놓인다면, '세계를 학습 환경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학습자를 창작자로 성장시키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능성들도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Katie King, KnowledgeWorks, 미국).

학습자 주체성

요약

학습자 주체성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이자 능동적인 선택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학생의 역할을 단순한 '학생'에서 '학습자'로 재개념화 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주도적 학습 환경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지시를 따르는 대상에서 혁신가로 변모하여 더욱 진정성 있게 학습하고 기술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 주체성은 평생 학습에 필수적이며, 학교 구조와 관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학습자 주체성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교육자의 주체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 액셀러레이터는 학습자 경험의 개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학습자 주체성은 학교가 학습, 학생의 정체성,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학습자 주체성은 학생을 수동적인 교육의 수혜자로 보는 대신 호기심이 많고 학습자 주체성을 지니며, 자신의 학습 경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도구와 기술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된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비전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와 신뢰의 문화, 그리고 교육자의 주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주체성 중심 접근법을 도입한 교육자들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자문위원인 Craig Chatham(미국 일리노이주 링컨셔-프렐리 뷰 DIO3 교육구)은 자신의 학군이 탐구 기반 학습 방식을 도입하면서 교실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고 전했다. "기본 전제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자신이 공부하는 주제나 주변 세계에 대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한 방법론과 과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라고 Chatham은 말했다. "이는 모든 교과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 교직원, 가족들 사이에서 상당한 흥분과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주체성'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는 호기심, 주인의식, 그리고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행이 성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새 학년도를 시작하며 Chatham은 자신의 학군에서는 정형화된 AI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교육자들이 각자의 AI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교직원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미니 세션을 개최했다.

Chatham은 "이 접근 방식의 목적은 모든 교직원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이 초보자든 숙련자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맞는 진입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효과를 거두었다. "세션 중간 뿐만 아니라 세션 사이의 이동 시간' 동안에도 흥분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교육자들이 주체성을 경험할 때, 학생들을 위해 이를 함양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자문위원인 Carla Puppo Perfumo(페루 리마 소재 아메리칸 스쿨, 콜레지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교육자의 주체성이 병행된 투자로 실현되지 않고서는 학습자의 주체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사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 사이클, 성찰적 실천을 키우는 전문 학습 공동체, 그리고 공동 창작을 중시하는 리더십 모델은 모두 학생 주도 학습의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교사가 설계자이자 리더로서 신뢰를 받을 때, 그 신뢰를 학생들에게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압력은 종종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문위원인 Jason Zagami(호주 골드코스트 그리피스 대학교)는 "최근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가장 큰 이점은 학습자 주체성이지만, 동시에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습을 측정 가능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가장 강하게 제약 받아 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주도할 자유와 도구를 갖게 되면, 전통적인 시스템은 “대처하기 어려워” 교육 방법을 제한하거나 유연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Zagami는 학습 과학으로 포장된 많은 트렌드가 실제로는 학습자 주체성을 제한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혁신적인 진보는 새로운 도구에서 비롯되기보다, 인식론적·윤리적 주체성을 함양함으로써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육자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의미를 부여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문위원 Mary Lang(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더십 형평성 및 연구 센터)은 이같이 말했다. “AI 도구가 도처에 퍼지면서 교실 교육은 학생들이 무엇을 아는가보다 어떻게 배우고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키우고, 학생들이 정보를 현명하게 탐색하도록 가르치며, 기술 뒤에 숨은 인간적 의미를 성찰하고, 학업적 성공만큼이나 윤리적 추론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학습자 주체성(Learner Agency)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구조적 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자 스스로 주체성을 경험하며 학생들을 뒷받침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하고, 창조하고, 협력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학습자 주체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이는 미래를 대비한 학습의 토대이자, 호기심과 적응력, 자기 주도적 성장을 요구하는 세상에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열쇠이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AI에 의존하는 학생이 아닌, AI를 활용할 준비가 된 학습자를 양성하라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진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학습자의 개별적인 학습 여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이 과정의 기초가 되며, 기술이 제공하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특성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AI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하고, 단순히 과제 제출용 답안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전략이나 실행 계획을 AI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지점이어야말로 기술과 학습자의 주체성이 강하게 만나는 부분입니다.” (Karen Swift, 제임스 내시 고등학교, 호주 퀸즐랜드주).

정체성과 목적은 주체성을 이룬다

“학습자 주체성은 학습자가 자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는 진로 연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Ed Hidalgo는 강점, 관심사, 가치관부터 시작하여 진로와 연결해 나간다면, 결국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지닌 학습자로 성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어 학습자의 평생에 걸쳐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Norton Gusky, NLG 컨설팅, LLC,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학습자들은 주체성과 맞춤형 교육을 기대한다

‘Accelerators’ 줌 토론 회의에서 자문 위원인 Will Goodman(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학군)의 그룹은 개인화, 학습자의 주도권, 그리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신의 필요에 맞춰진 학습을 기대하는 현재 세대 학생들과 관련된 트렌드의 패턴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적극적인 세대의 학생들이 논의된 다른 많은 트렌드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다. Goodman은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 필요한 방식,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학습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학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훌륭하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정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 특징인 이 시대에,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은 교육 분야의 혁신적 동력으로 부상했다.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이 기술의 장점과 과제를 탐구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거대한 기술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잠재적 위험을 동반하는 거대한 기회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열기가 급속히 고조됨에 따라, 형평성, 책임 있는 사용,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적응 능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교육자와 IT 전문가들은 명확한 로드맵이나 공통된 기준 없이도 실시간으로 AI를 도입하고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히 강력한 도구를 넘어, 교육 전반에 걸쳐 전환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혁신과 효율성을 주도하기 위해 그 잠재력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교육 전반에 걸친 기존 과제를 심화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신기술 도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 AI)과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AI는 영어와 수학 점수를 몇 퍼센트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습 가능성을 열어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는 학습자들이 기존에는 접할 수 없었던 분야를 경험하게 하고, 이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구식 교육 방식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미하게 개선될지 모르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의 주체성과 학습의 의미 자체가 상실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Ruben Puentedura, 히파수스, 미국 매사추세츠주).

각 교육구에서 지도자들은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도입하기 위해 의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문위원인 Kelly May-Vollmar(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저트샌즈 통합 교육구)는 “우리는 AI의 기회와 위험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교육구가 AI를 팀 동료로, 인간을 팀의 리더로 규정하는 지침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소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해당 학군의 RISE(존중, 성실, 지원, 공감) 가치에 기반해,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의미 있는 활용이 이루어 지도록 고안된 성찰적 질문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이끌어 간다.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과 기계 간의 의미 있는 협력을 조성하려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DSUSD는 AI를 교육 프레임워크에 신중하게 통합하여, 학생, 교사, 그리고 교육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AI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공유된 지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문 위원인 Lisa Gustinelli(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빈센트 페러 학교)는 May-Vollmar의 가치 중심 접근 방식을 칭찬하며,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용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 Gustinelli의 학교는 Gen AI를 “교사의 보조 조종사”로서 “교사들”을 지원하여 수업 계획 수립, 수준별 학습, 의사 소통을 돕고, 이를 통해 교육자들 이 수업 지도와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그녀는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인 접속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학교 밖에서 이러한 기술을 연습할 수 없습니다.” AI 준비도와 연결성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지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의라는 사실이다. 자문위원인 Claus Gregersen (덴마크 미드트지역 헤르닝 체육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 세계 교육계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라고 언급하며, AI의 잠재력과 복잡성 모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전 세계적으로 학생과 교사들은 이미 설명, 준비, 영감, 그리고 학습 향상을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종 충분한 지침 없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Gregersen은 “문제는 기술 사용에 관한 학교의 체계, 규칙, 지침이 이러한 급속한 적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학습을 촉진하지 못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있는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해당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 이 분야에 대한 훈련이 부족합니다.” 교육자와 기술 전문가들은 연수와 더불어 교실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자문위원 James “Seamus” Cummins(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젠킨타운 교육구)는 사회정서적 학습과 ‘전인 교육’ 철학이라는 맥락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소규모 교외 K-12 교육구 내에서 AI가 지닌 혁신적 잠재력을 확인했다. Cummins는 “신중하게 도입된 AI는 교육자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며, 회복 탄력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를 부여하는 동시에, 우리가 정신 건강과 웰빙 문제를 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AI가 “교육의 핵심에 있는 인간적인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며, 형평성, 윤리, 포용성은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시스템 전반에 통합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단순한 수업 활용을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다. 교실 밖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술, 인사/채용, 조달 시스템 등 교육의 다른 측면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학교 관리자들은 이 기술이 학문적 기능이 운영적 기능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는 종종 정책, 교육, 인프라가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시스템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도전과 기회는 AI의 역할을 의도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고 인간 중심의 학습을 위해 설계하는 데 있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교육 분야의 다음 큰 변화로 AI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AI의 등장으로 교육 분야 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겠지만, 우리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최선이여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했던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결승선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AI 버블이 붕괴될 위험도 있어 조금 더 어려울 것입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실수도 있을 수 있으며,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이 도전에 맞서 나아갈 것입니다.”(John Heffernan, 메이오, 솔라이고, 레이트림교육훈련위원회).

형평성을 우선시하라

“저에게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는 단순히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배우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기회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보호자, 돌봄 제공자, 그리고 도서관이나 법 집행 기관 등 지역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계획을 추진한다면, 그 기술 지원 요소는 순식간에 장애 요인으로 바뀌게 됩니다.”(Patrick Hausammann, 클라크 카운티 공립학교, 버지니아주, 미국).

AI 논의에 소극적인 구성원부터 대화에 참여시켜라

“우리 모두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교육의 변화 속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교직원들 사이에서 전문적인 디지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교사들의 업무 흐름에 클라우드 인프라가 미치는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했으며, 기술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학습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년 동안 혁신가 및 열리 어답터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학습을 위한 기술 활용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입하며, 적응해 나가는지 지켜본 결과, 바로 이 그룹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수업에서 기술 활용을 꺼리는 교사들에게 기술에 대한 믿음과 역량을 키워주는 데 더 맞춰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교사들을 조기에 포용하고, 그들이 AI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가치를 가능한 한 빨리 이해하도록 돕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Karen Swift, 제임스 내쉬 고등학교, 호주 퀸즐랜드)

AI를 위협이 아닌 교육 도구로 활용하자

“AI가 부정행위 도구라고 걱정하기보다는, 교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을 실험해 보며 맞춤형 수업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Lisa Spencer,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PGCC), 미국 메릴랜드주).

작게 시작하되,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최고의 AI 도구 또는 앱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Guoyon Li, XINYUN (BEIJING) EDU-TECH LTD., 중국).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

정의

교육자, 학생 및 관리자가 복잡한 데이터를 포괄적이고 접근하기 쉬우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이러한 도구는 데이터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더 광범위한 사용자가 증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 '기술 촉진요인' 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정보를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자, 리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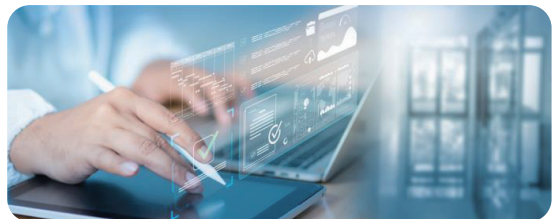
데이터 시각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단순한 수치는 수업 계획을 지원하고,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형평성 격차를 드러내고, 가정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각화의 영향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문화, 시스템, 그리고 인적 역량에 달려 있다. 여러 자문 위원들은 이러한 문화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om Ryan(K12 전략 테크놀로지 자문그룹, 미국 뉴멕시코주)는 정보를 더 명확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며, "명확한 대시보드와 시각화 도구는 학습 진척도를 가시화 할 수 있지만, 많은 교육구가 깨닫고 있 듯이 데이터 시각화의 효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문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Ryan은 많은 대시보드 도입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도구가 강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거나 품질이 낮은 데이터에 의존하거나, 시기적절한 데이터 공급이 부족하거나, 서로 소통하지 않는 분리된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입니다."라고 Ryan은 말했다. "강력한 데이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교육구는 소프트웨어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활용 능력, 분석 기술, 부서 간 협업과 같은 인적 역량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멋진 대시보드라도 그저 예쁜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려면 데이터 활용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자문위원인 Morgen Wilson Merritt(미국텍사스주 이안스독립 교육구)는 "저는 데이터마니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데이터가 종종 단순한 규정 준수 수단이나 평가시 휘두르는 망치로 취급 된다고 덧붙였다. Merritt의 학군은 데이터를 단순한 평가지표가 아닌 스토리텔링 도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호기심, 그리고 열린 대화가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Merritt는 팀 회의에 짧은 '데이터 활용' 세션을 포함시켰으며, 시각화 자료를 소개하고,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협력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말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또는 "다음 주에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와 같은 질문으로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루틴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대한 부담 없는 공유의 출발점을 만들어 준다.



시스템 차원에서, 자문위원인 David Jarboe(미국 콜로라도주 해리스 스쿨 D2)는 핵심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교육구는 전통적으로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평가, 출결, 행동, 인사, 재정애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그 상당수는 분절된 상태로 흩어져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어 교육자와 관리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맥락과 명확성, 접근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자산으로 남을 뿐입니다.”

Jarboe는 효과적인 시각화가 복잡한 데이터를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자들이 추세를 파악하고, 불평등을 식별하며,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이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Jarboe는 “AI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교육자들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각화는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을 넘어 일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다. 온라인 기반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문 위원 Zainab Adeel(미국 메릴랜드주 바안 아카데미)은 “우리에게 ‘데이터 시각화’는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감각적 정보원입니다.”라고 설명 했다. 학생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팀은 학생들의 참여 도와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Adeel은 자신의 학교가 학생 정보 시스템(SIS), 학습 관리 시스템(LMS), 평가플랫폼, 헬프 데스크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전에 우리 교직원들은 데이터가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교사는 LMS에서 해당 학생의 낮은 점수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학생이 헬프 데스크 시스템에 기술 지원팀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요청을 세 건이나 등록해 두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학업적 문제라고 판단했지만, 사실은 기술적 접근 문제였던 것입니다.”라고 Adeel은 말했다. 이 새로운 시각적 대시보드는 학교의 ‘디지털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Adeel은 “교사는 한눈에 ‘낮은 성적’ + ‘낮은 LMS 접속률’ + ‘많은 기술 지원 요청’이라는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학생이 단순히 학업적으로만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시각화는 단순히 차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진정한 영향력은 명확성, 통찰력, 그리고 인간의 역량에 기여하는지에 있다.

학교가 데이터를 둘러싼 시스템과 문화를 강화할 때, 시각화는 더 현명한 의사 결정, 조기 개입, 그리고 더 공평하고 학생 중심의 학습을 위한 촉매제가 된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그래픽을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라

“학부모 상담 시간에 교사들은 학생의 현재 상황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분기, 학기, 또는 학년 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Lisa Gustinelli, 세인트 빈센트 페터 학교, 미국 플로리다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출발해 효과적인 대시보드를 구축하라

“교육구들은 종종 이상적인 대시보드를 원하지만, 원하는 시각화를 구현할 데이터 포인트를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시보드를 뒷받침하는 올바른 데이터 요소가 있다면, 관리자들은 학생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학습을 이끄는 투자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ura Pollak, 나소 RIC, 나소 BOCES, 뉴욕, 미국).

데이터 문화와 상호운용성을 먼저 갖추고 시각화를 활용하라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는 K-12 교육에서 학습과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의 효과는 이를 둘러싼 데이터 문화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핵심 데이터 요소가 누락되었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대시보드가 너무 자주 구축됩니다. 저는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상호운용성 도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학교들이 데이터 기반 관행을 점점 더 많이 도입함에 따라, 효과적인 시각화는 학업적 성공과 운영 투명성의 초석이 됩니다.” (Todd Pickthorn, CETL, 마샬 공립학교, 미네소타주, 미국).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도구

정의

학습자가 온라인 기술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자원 및 플랫폼이다. 이러한 도구에는 앱 심사 및 학생 모니터링 솔루션부터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보안, AI 기반 방어 체계 등 첨단 사이버 보안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 포함된다.

특히 모니터링 도구가 사용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은 상충될 수 있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학생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때로는 상충되는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커뮤니티의 검증을 거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기술은 이 방정식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윤리적 사용, 소통, 그리고 책임감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력한 사이버 보안 및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 관행과 결합함으로써, 학교는 학습자와 교육 운영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도구는 K-12 교육 분야의 모든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학습 효과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교육용 기술과 달리, 이러한 도구는 온라인 환경이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은 민감한 학생 정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COPPA 및 FERPA, 유럽연합의 GDPR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이버 위험이 고조되고 디지털 학습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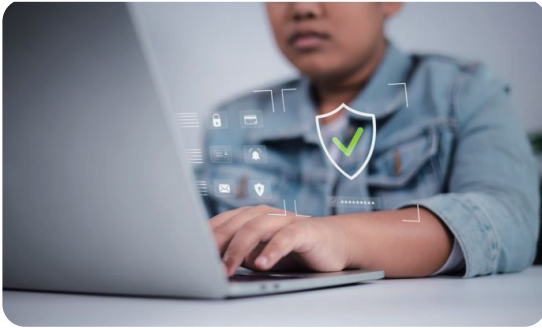
많은 교육구에서 이러한 도구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기반이 되었다. 자문위원인 Claus Gregersen(덴마크 미드트 지역 헤르닝 체육관)은 이 주요 주제가 “다른 모든 디지털 기술의 토대를 형성합니다.”라고 밝혔다.

Gregersen은 덴마크와 서유럽 전역에서 이 작업이 시급하면서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이 대폭 늘어나는 실질적인 사이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들은 피싱 및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위협과 방어 수단 모두를 가속화함에 따라, Gregersen은 학교들이 “AI를 이용해 점점 더 정교한 공격을 만들어내는 한편,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며 예방하기 위한 AI 도구도 개발하는 ‘AI 경쟁’에 휘말려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는 전략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그는 “보안 문제로 인해 내년 IT 비용이 1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각 학군은 안전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에 관한 유사한 압박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문위원인 Ryan Cox(미국 미네소타주 227 오세오 지역 학교구)는 기업이 학생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과 학교가 학교에서 지급한 기기에서 학생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방식 모두에서 학생 데이터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미네소타주의 최근 법안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 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사이의 긴장은 현실이다. “학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생활에 대한 감각을 보장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경계는 교육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다른 주들은 이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문위원인 David Jarboe(미국 콜로라도주 해리스 2학군)는 학군과 공급업체 양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콜로라도주가 중앙 집중식 학생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성 플랫폼(CASE Connective)을 출시한 사례를 설명했다. “현재 교육구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성 검토 작업을 중복 수행하느라 수 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라고 Jarboe는 설명했으며, 공급 업체들은 반복적이고 동일한 요청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 차원의 시스템이 마침내 규정 준수를 추적하고 중복작업을 줄일 수 있는 중앙 집중식이며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주가 이러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Nicole Bond(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링컨 중등 교육구 12)는 자신의 주에는 주 차원의 해결책이 없어 업무 중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교육구가 사이버 보안 문제와 더불어 COPPA 및 FERPA 준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Bond는 말했다. 이러한 분산된 접근 방식은 역량을 소모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자원이 부족하거나 IT 팀이 작은 교육구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모든 맥락에서 자문 위원들은 개인과 학습을 지원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도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분야에는 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모범 사례 공유, 학군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 공급업체와 내부 모니터링 관행 모두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 생태계가 더욱 상호 연결되고 취약해짐에 따라, 학교는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학습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인력, 그리고 파트너십에 투자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기술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 안전을 기술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히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가족, 지역 사회 지도자, 교육 기관 간의 신뢰가 부족한 환경에서, 부실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 안전을 ‘기술의 걸림돌’로 간주하는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Amy Zock, 미국 조지아주 디케이터 카운티 학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웰빙이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이 학습 시스템과 교육 과정에 통합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 사생활 보호, 그리고 복지는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Kimberly Martin, 미국 버지니아주 전국 학부모회)

효과적인 사례를 모아 살아있는 자료실을 구축하라

“종종 지식과 경험은 컨퍼런스 발표나 웨비나를 통해 공유되지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정보 센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시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Frankie Jackson, 교육 사이버 보안 연합 프로젝트 디렉터, 미국 텍사스주).

종합적인 관점

자문 위원들이 2026년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우선순위를 초월하는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K-12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력과 변화를 이끌어낼 공동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한 해 혁신을 이어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들의 글로벌한 관점이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2026년에 K-12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교육자와 학교 시스템 리더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수준(학습자, 가족, 교육자, 행정가)에서 교육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교육 생태계를 실현하는 능력은,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Mary Wegner,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 남동부 대학교)

“K-12 교육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주도하려면, 리더들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지문만큼이나 독특합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는 모든 학습자의 성공을 높여줍니다.” (Christine Fox, CAST, 미국 매사추세츠주)

“학부모, 지역사회, 정책 입안자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가 구상하는 혁신이 무엇이든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뢰야말로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Keith Krueger, CoSN, 미국 워싱턴 D.C.)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진정성 있는 마음”(Mai Ngoc Khoi, 트루 노스 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

“개인화와 목적 있는 활동을 반영한 전문성 개발 확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지원의 균형. 리더십 역량 강화” (Jody Kokladas, 셰이디 사이드 아카데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디지털화는 단순히 ‘스크린 타임’의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와 교사는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을 숙달해야 하며,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문화적 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AI와 데이터 기반 통찰력은 맞춤형 학습, 형성 평가, 포용적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통제나 감시 기반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거버넌스, 윤리적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의 공공 소유권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교육 문제를 디지털 이전의 과거에 대한 향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증거에 기반한 토론과 교사 연수, 학습설계, 디지털윤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Morten Sjøby, 로그온 네트워크 노르웨이, 노르웨이 오슬로).



2026년에 교육자와 IT 전문가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화와 목적 있는 활동을 반영한 전문성 개발 확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지원의 균형. 리더십 역량 강화” (Jody Kokladas, 셰이디 사이드 아카데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교육자와 IT 전문가가 별개의 부서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서 협력할 때 혁신은 번창합니다. 목표와 고충, 그리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교육과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돌파구가 열립니다.” (Stacy Hawthorne, 에듀테크 리더스 얼라이언스, 미국 오하이오주).

“열린 마음을 갖고, 현재의 이론과 현상 유지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Jennifer Williams, 뉴턴 카운티 학교, 조지아주, 미국).

“모든 교육자는 호기심을 드러내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or Shammass, 네이퍼빌 203, 미국 일리노이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2026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은 교육자와 IT 전문가가 협력하여 학생과 교사의 필요, 과제, 열망을 깊이 이해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Christy Hilton, 센트럴 인디애나 교육 서비스 센터, 인디애나주, 미국).

“목적을 가지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학생들을 위한 헌신,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2. 배움에 대한 열의,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세
3. 팀워크 능력,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문성을 창출하는 것
4. 현실 세계와 연결된 학교, 공감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학교” (Laura Motta, 우루과이 무한 재단,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026년에 가장 선구적인 학교 지도자들은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할까?'라고 묻지 않고, '어떤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은가? 그리고 기술, AI, 커뮤니티가 이를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David Vidal, EIM Consultores, 스페인).

DRIVING K-12 INNOVATION 요약

2026년 K-12 혁신을 주도할 장애 요인, 가속 요인,
기술 촉진요인을 살펴보세요.

cosn.org/kl2innovation



장애 요인

극복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이 필요한 혁신과 학생 성공의 장벽

교육자 및 IT 전문가 유치 및 유지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량, 민간 부문과의 경쟁으로 인해 학교는 교사와 IT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문화와 신뢰가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문 위원들은 (단순한 급여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인정, 전문성 성장에 대한 의도적인 투자가 궁극적으로 유능한 직원들의 헌신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안전 보장

디지털 도구가 일상 업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학교는 점점 더 커지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계속 확장되는 시스템 전반과 점점 더 정교해지는 위협 환경 속에서 모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문 위원들은 효과적인 보안은 공동의 책임, 강력한 정책 체계, 그리고 안전과 원활한 수업을 모두 지원하는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NEW!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가 실제 콘텐츠와 조작된 콘텐츠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드는 가운데, 교육자들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제 단순한 사실 확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즉, 깊은 식별력, 윤리적 판단력, 그리고 포괄적인 디지털 시민성 자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문 위원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것은 메타인지, 감성지능, 그리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제작 능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속도, 복잡성, 허위 정보로 특징지어지는 정보 생태계를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속 요인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메가트렌드 또는 촉매제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

리더의 인적 역량 강화는 의미 있는 K-12 교육 혁신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AI 리터러시, 성찰적 실천, 그리고 의도적인 전문성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투자가 요구된다. 자문위원들은 사람들이(기술이 아닌) 변화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원을 받으며, 권한을 부여받을 때 혁신이 성공한다는 데 동의했다.

학습 성과 입증에 대한 태도 변화

기존의 시험은 더 이상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이해의 깊이, 창의성, 또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므로, 사고 과정을 가시화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다중모드(multimodal) 성과 제시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보편적 학습 설계(UDL), 컴퓨팅 사고, 그리고 학생이 직접 만든 결과물은 학습자가 단순히 기억해 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학습자 주체성

학습자 주체성은 탐구 기반 학습, 교육자의 주체성, 그리고 호기심과 자율성을 장려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AI의 확산에 대응하여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진정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미래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신뢰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학습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촉진요인

새로운 학습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가 장애 요인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가속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들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생성형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사용, 형평성, 시스템 준비 상태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가 인간간의 유대감과 심층 학습을 증진하도록 보장하는 의도적이고 가치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데이터 및 정보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는 교육자들이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게 해석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그 영향력은 데이터의 품질과 데이터 사용을 둘러싼 문화에 달려 있다.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 시각화는 명확성, 형평성, 그리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도구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도구는 필수적인 신뢰의 기반을 형성한다. 현대 교육의 기반 시설은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법적 요건 속에서 민감한 학생 데이터를 보호하고 학교 운영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강력한 기술과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진정한 시스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유된 프레임워크, 학군 간 협력, 그리고 향상된 온라인 접근성, 학생 안전, 학생 개인정보 보호 간의 신중한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감사의 말씀

CoSN은 'Driving K-12 Innovation' 시리즈의 후원사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DW Education K12

Insight

CoSN은 다음 후원 단체(현물 파트너)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AACTE (미국 교사 교육 대학 협회)
- AASA (미국 학교 행정가 협회)
- AASL (미국 학교 사서 협회)
- AFT (미국 교사 연맹)
- All4Ed/Future Ready Schools
- ATLAS (사립학교 기술 리더 협회)
- CAST
- CLEAR (리더십, 형평성 및 연구 센터)
- 디지털 프라미스
- EEA (유럽 에듀테크 연합)
- EIM 컨설턴트 - 트레블 교육 그룹
- ESA (Education Services Australia Ltd)
- KERIS, 대한민국
- KnowledgeWorks
- 러닝 포워드
- Millennium@EDU 지속 가능한 교육
- NAESP (전국 초등학교 교장 협회)
- NASBE (전국 주 교육위원회 협회)
- 전국학부모회(National PTA)
- NCLD (전국 학습 장애 센터)
- NEA (전미교육협회)
- NSBA (전국 교육위원회 협회)
- 온라인 학습 컨소시엄
- SETDA (주 교육 기술 책임자 협회)
- 우루과이 무한 재단
- XINYUN (베이징) EDU-TECH LTD.

CoSN은 또한 토론 포럼 운영자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 Pam Batchelor (장애 요인)
- Pat Hausammann (장애 요인)
- Ryan Cox (가속 요인)
- Sandra Paul (가속 요인)
- Lisa Gustinelli (기술 촉진요인)
- Amy Zock (기술 촉진요인)
- Katie Harmon (종합)
- Jason Zagami (종합)

그리고 편집 위원회:

- Ben Bayle, CETL, CTO, 디칼브 CUSD 428, 일리노이주, 미국
- Nicole Bond, 교육 기술 서비스 감독관, 링컨 중등 교육구 12,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 Ryan Cox, CETL, 기술 담당 이사, 오세오 지역 교육구 ISD279, 미네소타주, 미국
- Elizabeth Freeman, 교육감, 시더 그로브-벨기에 학군, 위스콘신주, 미국
- Katie King, KnowledgeWorks
- Sarah Margeson, 커넥티드 러닝 코디네이터, 티피카누 학교법인, 인디애나주, 미국
- Karen Swift, 제임스 내쉬 고등학교 학과장, 퀸즐랜드, 호주
- Jason Zagami, 그리피스 대학교, 골드코스트, 호주

CoSN은 다음 분들의 비전과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

- Laura Geringer, 프로젝트 디렉터, 그래픽 퍼실리테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펄킨베리 컨설팅)
- Stephanie King, 작가 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 James Evans, 그래픽 디자이너

2026년 DRIVING K-12 INNOVATION 자문 위원

Sheryl R Abshire, 전 최고기술책임자 (CTO), 전 텍사스주 칼카슈 교구 교육구

Zainab Adeel, 바얀 아카데미, 미국 메릴랜드주

Chanel Alford, 기술 통합 전문가, 알렉산드리아 시립 공립학교/버지니아 교육기술 협회, 미국 버지니아주

Luke Allpress, CETL, 미국 애리조나주 아구아 프리아 연합 고등학교 교육구 혁신솔루션 담당 이사

Thomas Anderson, 공동 기술 서비스 부사장, IDEA 공립학교, 미국 텍사스주

Beatriz Arnillas, IEdTech 재단 사무총장, 미국 매사추세츠주

Krestin Bahr, 교육감, 페닌슐라, 워싱턴주, 미국

Pam Batchelor, Ed.D., CETL, 기술 및 혁신총괄 이사, 윌슨 카운티 학교구, 노스캐롤라이나주, 미국

Ben Bayle, CETL,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칼브 CUSD 428, 일리노이주, 미국

Arjana Blazic, EduDigiCon, 크로아티아자그레브

Nicole Bond, 교육 기술 서비스 감독관, 링컨 중등 교육구 12,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Laura Boone, CETL, 코치 | 컨설턴트 | 연사, 스트럭처드 시프트(Structured Shifts), 미국 애리조나주

Michael Borkoski, 최고정보책임자(CIO), 앤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 메릴랜드주, 미국

Valarie Byrd, 수석 학군 기술 컨설턴트/SCAET 이사회 의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육부(SCDE)/사우스캐롤라이나 교육 기술 협회(SCAET),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Nicole Carr, 프로젝트 디렉터: 학군/ 학교 IT 경험, 디지털 프라미스(Digital Promise), 노스캐롤라이나/미국 남동부, 미국

Michael Carvella, 교실 교사, 오크리지 학교, 테네시주, 미국

Craig Chatham, 기술 및 평가 책임자, 링컨서-프레리 뷰 학군 103, 일리노이주, 미국

Karen Cheser, 교육감, 두랑고 학군, 콜로라도주, 미국

Teshon Christie,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책임자, 하이라인 공립학교, 워싱턴, 미국

Audrey Cisneros, 교육 기술 수석 이사, IDEA 공립학교, 텍사스, 미국

Freddie Cox, CETL, 최고기술책임자(CTO), 녹스 카운티 학군, 테네시주, 미국

Ryan Cox, CETL, 기술 이사, 오세오 지역 교육구 ISD279, 미네소타주, 미국

Ashley Cross, Ed.D., CAE, ATLIS 교육 및 콘텐츠 수석 이사, 미국 앨라배마주

James "Seamus" Cummins, 기술 담당 이사, 젠킨타운 학군,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Ryan Daniel, NAESP 이사/교장, 포트 팟 초등학교, 메릴랜드주, 미국

David Deeds, ICT 교사, 풋프린트 인터내셔널스쿨, 캄보디아 프놈펜

Maria "Sharo" Dickerson,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교육구(El Paso ISD) 디지털 및 학습자원 담당 이사

Holly Doe, 교육구 교육 코치, MSD II, 메인주, 미국

Dr Bek Duyckers, 호주 퀸즐랜드주 쿠메라 앵글리칸 칼리지 부교장

Jason Edwards, 미국 워싱턴 D.C. AFT 교육 문제 담당 부국장

Tonya Ellis, 기술 서비스 국장, 컬럼비아 공립학교, 미주리주, 미국

Andy Fekete, 혁신 및 기술 II 국장, CCSD 93, 일리노이주, 미국

Kim Flintoff, 커틴 대학교(Curtin University), 퍼스, 서호주, 대학 부교수

Cat Flippen, 조지아 학교(조지아주, 미국) 학습 기술 부국장

Elizabeth Foster, 리서치 및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러닝 포워드, 버지니아, 미국

Christine Fox, 최고 성장 및 혁신 책임자, CAST, 매사추세츠주, 미국

Mario FRANCO, 밀레니엄@EDU 지속 가능한 교육(Millennium@EDU SUSTAINABLE EDUCATION) 대표, 스위스 제네바

Charles Franklin, CETL,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독립학군(Cypress-Fairbanks ISD), 미국 텍사스주

Elizabeth Freeman, 교육감, 시더 그로브-벨기에 학군, 위스콘신주, 미국

Matthew Friedman, 웨이커타운 커뮤니티 학군 교육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Krysia Gabenski, NAESP

Rick Gaisford, CETL, 교육 기술 전문가, 유타주 교육위원회, 미국 유타주

Katie Gallagher, 기술 통합 전문가, 거니슨워터셰드 학군, 콜로라도주, 미국

Laura Geringer, 그래픽 퍼실리테이터, 펄킨베리 컨설팅, 콜로라도주, 미국

Steve Gonzalez, CETL, 최고 기술 책임자, 델 발레 독립 교육구, 텍사스주, 미국

Will Goodman, 최고 기술 책임자, 보이시 학군, 아이다호주, 미국

Claus Gregersen, 헤르닝 고등학교(덴마크 미드트 지역) 학사 담당

Norton Gusky, 교육 기술 중개자, NLG컨설팅, LLC,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Lisa Gustinelli, 교육 기술 책임자/IT 관리자, 세인트 빈센트 페러 학교, 플로리다주, 미국

Laurie Guyon, 교육 기술 프로그램 수석코디네이터, WSWHE BOCES, 뉴욕, 미국

Kris Hagel, CETL, 최고 정보 책임자, 페닌슐라 학군, 워싱턴, 미국

Katie Harmon, 교육 기술 이사, 웨스트힐 센트럴 스쿨, 뉴욕주, 미국

Jennifer Harriton-Wilson, 교육 기술부국장, PNWBOCES, 뉴욕, 미국

Patrick Hausammann, CETL, 교육 기술감독관, 클라크 카운티 공립학교, 버지니아주, 미국

Beth Havinga, 전무 이사, 유럽 에듀테크얼라이언스, 독일 베를린

Stacy Hawthorne, CETL, 에듀테크 리더스 얼라이언스(EdTech Leaders Alliance) 전무 이사, 미국 오하이오주

John Heffernan, 메이오, 슬라이고, 리트림 교육 및 훈련 위원회

Christy Hilton 박사, 미국 인디애나주 센트럴 인디애나 교육 서비스 센터(Central Indiana Educational Service Center) 부집행 이사

Phil Hintz, 최고 기술 책임자, 나일스 타운십 학군 219, 일리노이주, 미국

Lindy Hockenbary, K-12 에듀테크 자문위원, LindyHoc, 미국 몬태나주

Kate Horstmann, 기술 통합 전문가, MOREnet, 미주리주, 미국

Jason Hoyle, CETL, 교육 기술 전문가, 히코리 시립 학교, 노스캐롤라이나주, 미국

Frankie Jackson, CETL, 교육 사이버 보안연합(Cybersecurity Coalition for Education) 프로젝트 디렉터, 주 및 국가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사고 파트너, 미국 텍사스주

David Jarboe, CETL, 교육기술/STEAM/CTE 국장, D2 해리슨 교육구, 미국 콜로라도주

Katie King, KnowledgeWorks Beverly Knox-Pipes, 전직 최고기술책임자(CTO): BKP 솔루션즈 대표이사 겸 컨설턴트, 미국 미시간주

Jody Kokladas, 전문성 개발 및 교육 설계이사, 세이디사이드 아카데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Keith Krueger, CEO, CoSN - 학교 네트워킹 컨소시엄, 미국 워싱턴 D.C.

Brigit Kyle, 기술 담당 이사, 오크토폴스 공립학교, 미국 위스콘신주

Mary Lang, 교육 형평성 및 연구 센터(CLEAR) 교육 형평성 최고 책임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Mark Leslie, 기술 운영 이사, 리치랜드 카운티 제학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미국

Guoyun Li, CEO, XINYUN(베이징) EDU-TECH LTD, 중국 베이징

Chris Lindroth, 기술 이사, 디케이더 카운티 커뮤니티 스쿨, 인디애나주, 미국

Ngoc Khoi Mai 박사, 트루 노스 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

Khoi Mai Ngoc, 박사, 트루 노스 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

Chantell Manahan, CETL, 기술 이사, MSD of Steuben County, 인디애나주, 미국

Brandon Manrow,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코디네이터,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독립 교육구

Sarah Margeson, 커넥티드 러닝 코디네이터, 티피카누 교육구, 인디애나주, 미국

Kimberly Martin, 프로그램 매니저, 가족 참여센터, 전미학부모교사협회(National PTA), 버지니아주, 미국

Holly Martin, 교직원 개발 전문가, 마운틴 브룩 학교, 미국 앨라배마주

Ashley May, CETL, 디지털 자원 및 미디어 센터 자원 담당 이사, 스프링 브랜치 독립 교육구, 텍사스주, 미국

Kelly May-Vollmar, 교육감, 데저트 샌즈 통합 교육구, 캘리포니아주, 미국

Ashley McBride, CETL, 노스캐롤라이나주 교육부 디지털 학습 이니셔티브 과장,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Edward McKaveney, 교육학 박사(Ed.D.), CETL, 기술 담당 이사, 햄튼 타운십 학군,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Janice Mertes, CDW, K-12 주 차원 앰배서더

Justin Merwin, CETL,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디어 레이크스 학군 기술 담당 이사

Punya Mishra, AACTE

Stuart Mitchell, 대학, 최고경영자, 오가니제이션, 빅토리아, 호주

Laura Motta, 우루과이 무한 재단,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Ximena Nunez del Prado, 기술 및 학습 혁신 이사, 콜레지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리마 미국 학교, 페루 리마

Alice Pak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

Sandra Paul, 전 유니온 타운십 공립학교 기술 담당 이사, 미국 뉴저지주

Adam Phyll, 전문 학습 및 리더십 담당 이사, 퓨처 레디 스쿨스, 미국 워싱턴 D.C.

Todd Pickthorn, CETL, 마셜 공립학교(미네소타주, 미국) 교육구 기술 코디네이터

Alex Podchaski, 최고 기술 책임자, 플로리다 트리니티 예비 학교, 미국 플로리다주

Laura Pollak, NASTECH, DPSS 및 SMS, 나소 RIC 감독관: 나소 BOCES 뉴욕(다운스테이트) 데이터 보호 책임자, 미국

Steven Priest,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 SETDA/와이오밍주 교육부, 미국 와이오밍주

Ruben Puentedura, 설립자 겸 대표, 히파수스, 매사추세츠, 미국

Carla Puppo, 학습 혁신 코치, 콜레지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리마, 페루

Brad Rellinger, CETL, 최고 기술 책임자, 노던 버키 교육 위원회, 오하이오, 미국

Janelle Reyes, CETL, 기술 서비스 국장, 코퍼스 크리스티 독립 교육구, 텍사스, 미국

Gaby Richard-Harrington, 기술 및 디지털 아트 교사, 그래이터 커먼웰스 가상 학교, 미국 매사추세츠주

Glenn Robbins, 브리간틴 커뮤니티 스쿨

Lorne Rodriguez, 엔터프라이즈 GenAI 매니저, 시카고 공립학교, 일리노이주, 미국

Jacqueline Rodriguez, NCLD(전미 학습 장애 센터), 전미(미국), 미국

Donna Roper, 연구, 평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통합 담당 이사, 세인트클라우드 지역 학교, 미네소타/중서부, 미국

Tom Ryan, K12 전략 기술 자문 그룹 공동 설립자, 미국 뉴멕시코주

Kelly Sain, 최고기술책임자(CTO), 톰슨 학군, 콜로라도주, 미국

Trent Schalk, CETL, 기술 코디네이터, 일리노이주 라일 CUSD 202

Tony Schlorff, CETL, AASA

Jason Schmidt, CETL, 기술 담당 이사, 오시코시 지역 교육구, 위스콘신주, 미국

John Sebalos, 기술 담당 이사, 펠렘 연합 자유 학군, 뉴욕, 미국

Duane Shaffer, CETL, 기술 서비스 국장, 러닝 테크놀로지 센터, 일리노이주, 미국

Noor Shammas 박사, 교육 기술 코디네이터, 네이퍼빌 203, 일리노이주, 미국

Deepak Sharma, 교육 자원 컨설턴트, NCDPI, 노스캐롤라이나주, 미국

Madeline Shellgren, 대외협력 및 개발 이사, 온라인 러닝 컨소시엄, 미시간주, 미국

Morten Soby, 교육 혁신 컨설턴트, 로그온 네트워크 노르웨이(Log on network Norway), 노르웨이 오슬로

Lisa Spencer, 기술 교육 및 멀티미디어 개발 팀 매니저, 프린스 조지스 커뮤니티 칼리지(PGCC), 메릴랜드, 미국

Kathleen Stephany, CETL, 정보 및 기술 이사, 홀멘 학군, 위스콘신, 미국 Karen Swift, 제임스 내쉬 고등학교 학과장, 퀸즐랜드, 호주

Justin Thompson, 미국 워싱턴 DC,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선임 정책 분석가

Matt Treese, 역할 1: 실무 교수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 2:
컨설턴트, 역할 1: 윌크스 대학교; 역할 2:
펜실베이니아주 교육부-학교 지원국,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Chris Turner, 최고정보책임자(CIO),
와쇼 카운티 교육구, 네바다주, 미국

Jackson Vega, IT 관리자, 콜레지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리마 미국 학교,
페루 리마

David Vidal, EIM Consultores, 스페인

Mary Jane Warden, CETL,
최고기술책임자(CTO), 팔라틴
커뮤니티 학군 15, 일리노이주, 미국

Mary Wegner, 부교수 겸 교육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알래스카 남동부
대학교, 알래스카, 미국

Andy White, 기술 담당 이사, 뉴레녹스
학군 122, 일리노이주, 미국

Jenna Whitney, 혁신 및 디지털
학습 담당 이사, 사우스 앨러게니 학군,
펜실베이니아, 미국

Stephanie Williams, 교육 기술
담당 이사, 그린빌 카운티 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미국

Jennifer Williams, 교육 기술 및
미디어 서비스 국장, 뉴턴 카운티 교육청,
조지아주, 미국

Donna Williamson, 프로젝트 디렉터,
CoSN K-12 CTO 아카데미, 앨라배마주,
미국

Morgen Wilson Merritt, 디지털
기술 코디네이터, 이안스 독립 교육구,
텍사스주, 미국

Jeremy Womack, 기술 및 혁신 담당
이사, 보이드-부캐넌 학교, 테네시주,
미국

Jason Zagami, 박사, 그리피스 대학교,
골드코스트, 호주

Amy Zock, 미국 조지아주 디케이터
카운티 교육청 교육 및 혁신 기술 담당
전무 이사

